

공감

집행위원장 편지

북간도의 십자가

최갑주 집행위원장 (SFC 간사)



회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개혁연대가 한 해 동안 교회개혁을 위해 애써온 것은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명성교회 세습과 같이 이룬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시대가 아니더라도….

10월 10일에 〈북간도의 십자가〉라는 영화를 집행위원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CBS PD 김동민 집행위원이 제작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작품으로, 일본제국주의에 맞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2019.11
통권 73호

발행인 박종운, 방인성, 윤경아
편집인 이헌주
편집실무 김종미
발행일 2019년 11월 4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0 CI빌딩 301호
전화 02-741-2793
팩스 02-741-2794
홈페이지 www.protest2002.org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

PROTEST 2002 교회개혁실천연대

이 목숨을 바쳐 가며 찾고자 한 것은 나라였습니다. 당대에는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지만 눈물로 씨 뿌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으며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 같다고 판단되는 현실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친일파가 된 사람들은 광복이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돈과 힘으로 무장하고 달려드는 골리앗 같은 세력에 맞서 싸우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북간도 명동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정재면을 교사로 초빙했을 때, 그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현실적 필요에 따른 형식적인 수용이 아니라 진실한 개종이었습니다. 북간도와 명동마을의 지도자인 김약연은 목사가 되어 명동교회에서 사역하기도 했습니다. 명동교회는 명동마을과 명동학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명동교회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정재면의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정재면과 같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자문해 봅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여 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원하는 그들에게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북간도의 십자가'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11월부터 시작하는 '13기 교회개혁아카데미'를 통해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집행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았던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새로운 회원들께서 집행위원으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2019년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월별 활동]

월별	주요활동	비고
1월	• 2019년 정기총회 '도약, 함께 솟구치다' • 2019년 정기총회 이슈토크 '성벽 밖의 신앙을 말한다' • 2018년 교회상담 통계 및 경향분석 발표 및 카드뉴스 제작	• 2018년 교회상담 통계를 통해 한국교회 현 문제를 분석함.
2월	• [성명서] 오정현 목사, 교회와경찰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취임에 대한 입장 • [선언문]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한국 그리스도인의 선언	
3월	•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긴급 좌담회 '204일,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 2018년 사역보고서 발행 • 대중집담회 '3.1운동 100주년에 — 3.1운동'	
4월	•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 판결을 촉구하는 총회 재판국 앞 피켓 호소 • 2019 상반기 교단총회 참관단 모집 • 목회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교육 강연회 및 개별상담 '연말정산하셨나요? 안 하셨다면 꼭 들으셔야 해요' • [성명서]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범위 개정안 입법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 • 광화문416광장에서 드리는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예배	• 기성과 기하성 교단을 참관함으로, 교단총회 참관 대상을 확장함.
5월	• [성명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모든 것을 불법으로 하셨습니다 • [성명서] 기하성 제68차 총회 헌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새로운 왕국 건설을 꿈꾸는 것인가' • [성명서] 세습금지법 폐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논평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아, 소리를 멈추라' •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장신대 '걷기도회' 참여 • 2019 상반기 교단총회 참관활동(기성, 기하성) • 12기 교회개혁아카데미 '새롭게 박동하는 교회' • 찾아가는 개혁연대-목포 새로운개혁교회 •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 오픈	•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기하성 등 교계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임
6월	•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기도회 '기도로 일구어가는 교회개혁' • [성명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시국 선언문 발표에 대한 입장 '국민을 분열하는 한기총은 역사에서 사라져라'	
7월	• 2019년 상반기 교회상담 통계 • 바른 재심 판결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 •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및 피켓 호소 • [논평]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불법이다 • 2019 성서한국 전국대회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묻다' • 소식지 '공감' 72호 발행	• 교회문제상담소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교회상담

월별	주요활동	비고
8월	• 제104회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 앞 피켓 호소 • [논평]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정의를 향한 한 걸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 2019 교단총회 참관단 모집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바꿉니다' •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	• 교단법과 노회법을 무시한 채 감행되는 세습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임
9월	• [논평] 명성교회 세습 허용한 총회 결의에 대한 세반연 논평 '세습의 길을 터준, 이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를 애통해하며' • 2019 교단총회 참관단 출범 공동 기자회견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바꿉니다' • 2019 하반기 교단총회 참관활동(예장통합, 예장합동) • [입장문] 개혁은 자신의 성찰과 함께	• 교단총회 참관활동을 통한 선한 견제 및 교단총회의 모습을 알림으로써 여론 형성
10월	• 명성교회 불법세습 10만인 반대 서명 시작(현재 6000명 서명 중) • [논평]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순복하라 • [카드뉴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세습의 길을 열다 • [카드뉴스] 2019 예장합동총회,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목한 주요쟁점 • 2019 교단총회 참관단 활동 결과 기자회견	
11월	• 13기 교회개혁아카데미 '교회를 일구어가는 우리들의 자세' • 목포세미나 '교회! 변화의 길로 나아가다'	

연중 내 : 모범정관 보급 활동, 교회상담, 목회자 소득세 신고 상담, 교회세습 상담/신고접수,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사무국 담당, 공적헌금운동, 연대활동, 소식지 '공감' 발행(2회)

[2019 교회개혁사역을 위한 100인 특별모금]

버 팀 목 이 되 어 줄
친 구 를 찾 습 니 다



[긴급수혈] 일시불로 10만원씩 후원해 주실 분 100명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연말에 진행된 〈100인 모금 프로젝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재정난을 이겨내고 그 이후 교회상담, 세습반대운동과 교단총회 참관활동, 교육사업 등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회원 및 교회후원은 늘고 있지만, 개혁연대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시불로 10만원씩 후원해 주실 분 100명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끝끝내 버티며, 역동적으로 교회개혁운동을 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특별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후원방법 안내

-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실 때) 국민 **093401-04-088670**(한빛누리교회개혁)
- 기부금영수증이 필요없을 때) 국민 **299601-01-028011**(교회개혁실천연대)

보내실 때〈100인 본인이름〉을 표시해주세요.

문의 **02-741-2795**(전화, 문자 가능)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윤환철 감사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이상주의' 비틀기

"그래, 김정은이 자유주의 국가를 만든답니까?"

지난 9월 경영학과 신학 분야의 '석학'이라고 소개받은 미국 교수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역사상 초유의 북-미 대화, 남-북-미 대화 국면을 전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교수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이 제게 유사한 질문을 했습니다. 유사한 국면에 손○○ 장로님도 제게 "그래, 통일을 좀 간단하게 말해봐!" 하셔서 "장로님도 철학을 좀 쉽게 말해보라는 요구를 받으시지요."라고 답했습니다. 뜻을 이해하시고는 허허 웃으셨죠. 일반인들뿐 아니라 전문 지식인들도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간단하게 말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뭐, 어디는 완벽한가? 당신 몸 담은 곳은 완전하냐고?"

하루는 친한 언론인이 식사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장로님은 왜 제가 싫어하는 방송사만 골라 일하세요?"라고 정중히 묻자 "뭐 어디는 완벽해? 당신이 몸 담은 곳은 완전해?"라고 답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이 저울에 달아 보라고 하시잖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건… 그렇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속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는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북한에 대해서는 갑자기, 단번에 완벽해질 것을 요구할까요?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때 "그래서 천국이 될 거야?"라고 질문을 하는 것과 같죠.

'완벽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것들은 똑같다', '다 그게 그거다'라는 주장은 더 나쁜 선택을 정당화할 때 동원됩니다. 저는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절망욕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예컨대 북한이나 세습 교회)에 대해서 절망하고 싶은데, 이유를 댈 것이 없으면 완벽한 이상주의를 가져오죠. '절망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정반대로 '이르지 못할 이상'과 대비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상주의'를 배격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외부 학문 세계에서 '이상주의'는 현실에 가깝게 진화했는데, 예컨대 'realistic utopia'라는 개념입니다. 최근의 정치철학이 다루

는 'utopia'(no where)는 갈 수 없는 망상의 나라가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의 개선을 추구하는 기능(function)입니다. 아픈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것,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기능을 'realistic utopia'라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교회 밖 학문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교회는 옛 지식에 머물러 고리타분하고, 또 그걸 비틀어 부조리한 현실에 눈을 감으니 한심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와 온전함의 양을 측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weighed on the scales and found wanting) 함이요"(단5:27)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full measure)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창15:16)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weigh me in honest scales)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욥31:6)

욥은 자신이 절대 의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달아 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한국교회에서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현상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모릅니다만, 분명 신실하다고 알려진 교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절망욕구가 표출할 때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절망욕구는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번역하자면,

"교단이 다 똑같지" = "방금 세습한 교단과 굳이 싸우지 않겠다", "그놈이 그놈이야" = "애써 판단하고 투표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달아 보신다고 했는데, 이거나 저거나 뭐가 다르냐, 다 똑같다는 사고방식이 악행의 모판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절망욕구를 펼치거나 절망할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불의와 맞서 한 발자국을 밀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 아닌가, 온전한 의를 사모하는 진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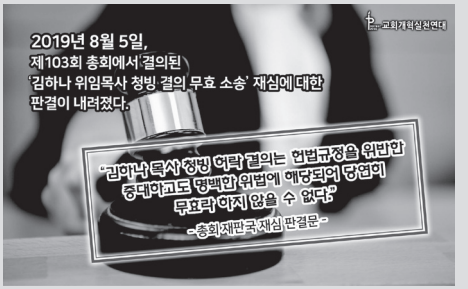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세습의 길을 열다

지난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이른바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수습안은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가능케 하는 '명성교회 세습안'이었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부터 수습안 통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았습니다.

8월 5일(월),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재판국이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판결했습니다. 이에 8월 6일(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정의를 향한 한 걸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세습불가'라는 예장통합 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명성교회의 시도는 가당치 않다는 것이다. 재판국은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교단헌법 28조 6항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둘째, 명성교회는 불법세습을 통해 행정과 재정의 부패를 감추려고 했으나 재판국의 판결로서 부패의 의혹들을 감추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라도 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서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셋째, 대형교회의 돈과 힘으로 노회와 총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추락시키는 일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까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교회와 교단은 금번의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8월 7일(수), 명성교회 장로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고, 8월 14일(수),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 판결문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위원회에서 담임목사 은퇴 후 5년 후에 세습을 가능토록 하는 시행령을 청원하였습니다. 결국 제104회 총회의 결정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04회 총회 개회 하루 전인 9월 22일(일), 김삼환 목사는 '제104회기 총회장님과 총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교계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고 저희 교회를 향한 애정 어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한국교회에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총회가 시작된 9월 23일(월), 세반연을 포함한 세습반대 연대단체들은 총회 장소인 포항 기쁨의교회 앞에서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집행 및 세습금지법 수호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성교회 측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 기자회견을 중단하였습니다.



총회 마지막 날인 9월 26일(목), 총회 기간 중 꾸려진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찬성 920명, 반대 284명으로 결의되었습니다. 또한, 담임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세습을 허용하는 헌법시행규정은 1년간 연구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김하나 목사는 2021년 1월 이후 다시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안>

3.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
7.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 제기, 기소 제기 등 일절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9월 26일(목), 세반연은 '세습의 길을 터 준, 이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를 애통해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 많은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냈으며, 교단 내 교회들은 총회 결의 무효 청원을 하는 등 '명성교회수습안'에 대한 거센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 평]

세습의 길을 터준,

이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를

애통해하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여전히 안하무인의 길을 걷고 있는 명성교회를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음과 동시에 교회개혁을 위한 마음과 행동이 더욱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이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명성교회 불법세습 10만인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10만 성도를 자랑하며 세습을 정당화하지만, 세습은 명백한 불의이며 한국교회에서 근절해야할 죄악임을 인지하고 개혁을 바라는 10만인들의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0만인 반대서명하기

명성교회 불법세습
10만인 반대 서명 운동
바로가기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바꿉니다

주요 장로 교단총회가 열리는 가을, 이번에도 개혁연대는 교회개혁을 위한 총회 참관활동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문제가 불거진 예장통합과, 여전히 여성 안수가 숙제로 남겨져 있는 예장합동 총회에서 우리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참관단의 시선을 통해 한국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 싸움은 오래갈 것이다." _ 예장통합 참관활동가 윤혜영

총회를 참관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이번 총회의 결정은 교계뿐 아니라 세상까지 지켜보며 공의로움을 기대하는 중요한 것이기에, 직접 참관하며 그 무게감을 느껴 보려 했다.

… 중요한 안건들은 계속 뒤로 미뤄지며 첫날을 마쳤고, 둘째 날 오전까지 참관하고 서울로 오게 되었다. 올라오는 길에 접한 소식에 다리가 풀렸다. 모든 상황이 이미 준비되고 방향도 정해진 듯 온정주의에 호소하는 김삼환 목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세습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세습에 반대하던 300여 명의 총대도 있지만, 그걸 무력화시킬 만큼 압도적인 지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통합교단은 세습을 인정하고 앞으로 행하여 갈 치욕스러운 결정을 하였다.



▲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아마 이 싸움은 오래갈 것이다. 계속 지는 싸움일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때를 위해 하나님이 그대로 두라 하신 말씀처럼…. 이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예장합동 총회, 거대한 철옹성이었다.” _ 예장합동 참관활동가 강태우

작년 총회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게 특혜 중의 특혜를 준 ‘초단기 2주 편목 과정’과 관련된 헌법이 어떻게 2/3의 찬성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의아했는데 총회에 참석해 보니 이해가 되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헌의안에 대해서 총대들이 특별히 자신과 이해관계가 없으면 빨리 빨리 통과시키는 상황이었다.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만약 7년 전 예장합동 총회에 참석해서 한국교회 교단 정치의 현실을 알았더라면 7년째 사랑의교회 갱신을 위해 싸우고 있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날 눈으로 직접 확인한 예장합동 총회는 참으로 바꾸거나 개혁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철옹성이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걱정하는데 총회에 젊은 총대가 보이질 않는다.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구성원들이 여성 절반이 훨씬 넘는다. 그런데 총회에서 여성 총대를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었다. 1년에 한 번 교단 총회를 하는데 젊은이와 여성 총대가 없는 것이 지금 예장합동 총회와 한국교회가 처한 문제 중의 하나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방증한다.



▶ 예장합동 제104회 총회 참관단

"'패거리주의'는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핵" _ 참관단 결과 보고 기자회견

참관활동 후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회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혁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은 예장합동 총회를 참관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 사역자 강도권 청원 기각, 목회자 윤리강령 상정 기각, 총회의 민주적 운영 등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패거리주의'는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핵"이라고 표현하며 신학부 복음주의 6개 단체 사상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총회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상조사, 신학사상 조사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타인을 겁박하는 것, 그것은 그 의도나 생각에 있어서 매우 어리석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합동총회가 대화와 포용과 함께 하는 총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방인성 공동대표는 "이번 2019년 총회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여 그 어느 때보다 퇴보한 총회"라고 총평했습니다. 총회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향하여 "교권을 강화하고 성도들과는 관계없는 목사·장로 총대들의 놀음판이었다. 청년들의 신음, 사회의 아픔, 소외된 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총회"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예장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용인에 관하여서, "돈과 힘에 굴복하여 103회 총회 결의를 뒤집은, 교회사의 가장 치욕적인 총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2019 교단총회 참관단 결과 보고 기자회견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 같고, 그래서 싸움은 길어지고 있지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교회의 본질과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마음 아파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개혁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교단총회 참관활동은 계속됩니다.

'예장통합 104회 총회, 명성교회 세습의 길을 열다' 카드뉴스 보기

'2019 예장합동총회,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목한 주요 쟁점' 카드뉴스 보기

‘교회가는 길’ 개발자 **박현철** 연구원 인터뷰

교회를 생각하면,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에 물음표를 던지기도 합니다. 익숙한 교회를 넘어, 새로운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가, 청어람ARMC 박현철 연구원입니다.

Q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철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기독인연합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복음주의 운동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신학을 공부하며 7년간 교회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후 기회가 되어 청어람ARMC에 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Q2. 한국사회와 교회가 마주한 이슈들을 주제로, 여러 강좌와 커뮤니티를 기획하고 계시는데요. 이 일을 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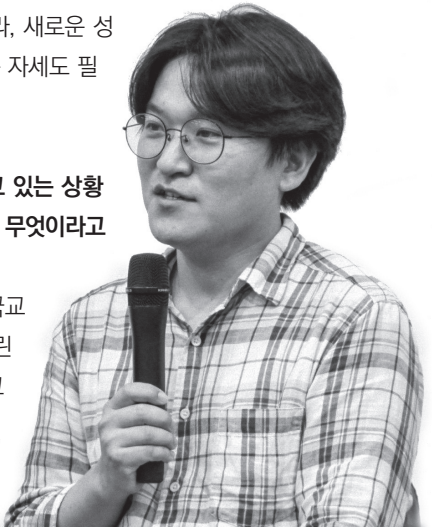
청어람ARMC에서 일하기 전,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몇 가지 한계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신앙적 고민이나 삶의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회가 그 사람들의 고민을 충분히 해소해 주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 가진 문제의식에 대해,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듯합니다. 교회를 넘어서 교회 바깥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나누며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어람ARMC는 대학생 시절부터 알던 곳이었는데, 청어람ARMC에서 개최하는 강좌에 수강생으로도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의 기독교적 활동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중에, 마침 청어람ARMC로부터 기회를 얻었고, 7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3. ‘가나안 성도’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나안 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성도와 관련하여,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어떻게 하면 떠난 교인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조금 변화되면 떠난 교인들이 돌아오겠지…’라는 것이 교회 중심적인 사고는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강좌와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나안 성도는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예배,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 치부할 게 아니라, 새로운 성도의 부류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Q4. 가나안 성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도들에게 있어 한국교회는 그 매력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는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력 있는 교회라 함은, 단

순히 '예배가 좋다' 혹은 '세련돼 보인다'가 아니라 성도가 납득할 만한 교회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교회라면 내 신앙을 의탁할 수 있겠다', '저 교회라면 삶의 고민들을 풀어놓을 수 있겠다' 정도의 납득이 되어야, 성도가 그 교회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러한 매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교회 전반적으로 일반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과제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색깔을 지닌 채, 한국교회가 시류에 흔들리고만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Q5. 현재 개발 중인 '교회가는 길'은 어떤 서비스인가요?

가나안 성도들이 그들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그 여정의 목적지를 설정해 주기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주고 싶었습니다. 섣불리 '교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각자의 필요에 맞는 교회 공동체를 찾아보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는 길'이 교회를 찾아 주는 일회적인 서비스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정보들을 살펴보고 교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는 길'은 그러한 방향성을 추구하며 기획되었고, 실제적인 커뮤니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고민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교회가는 길 홈페이지

Q6. '교회가는 길'을 개발하는 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좋은 교회, 추천할 만한 교회를 찾는 작업도 어렵지만, 그 교회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어려운 부분인 듯합니다. '교회가는 길'은 교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이는 곧 신뢰도와 연결됩니다.

객관적인 정확성도 필요하겠지만, 교회라는 곳을 객관적 측면만으로 바라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부분을 숫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관적인 관점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주관적인 관점이 이용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주관적 평가에 관한 범주를 구성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교회가는 길'은 교회에 관한 커뮤니티의 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관한 주관적 입장을 게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론에 의해서 교회가 판단받는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는 길' 서비스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으로는 각 교회에 설문지를 보내고, 그 교회의 답변을 토대로 교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Q7. '교회가는 길'을 통해 기대하고 계신 바는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서 해소되지 않는 질문이나, 교회가 해소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러한 질문들은, 교회 비판적일 수 있으며 외부자의 시선에서 교회에 던지는 도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강좌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는 길'도 그러한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공적인 장에 올려 놓고 칭찬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나눔이 활성화된다면, 성도와 목회자, 한국교회 전반에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소비하려 한다는 시각, 교회를 비교하면서 판단 짓는다는 시각, 교회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 등 주

위의 여러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보다도, 이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Q8. 마지막으로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활동가로서 또는 목사로서 생각하고 계신 사역의 방향성은 무엇인가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교회로 돌아가 사역을 이어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연스레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는 게 부담스러웠고, 몇 년간 목사임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성도를 돕는 일을 해오면서 '이 일 또한 목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력하고 있는 '교회가는 길' 서비스 역시 목회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로서의 소명 의식도 되찾고, 지금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즐겁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목회였음을 깨달은 듯합니다. 다만, 기존 교회의 목회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지금껏 해 왔듯이 교회 밖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목회의 방식을 꿈꾸고 있습니다.

시작은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였습니다. 교회 주위를 맴돌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로운 목회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익숙함에 질문하는 자세야말로 개혁의 밑거름이 아닐까요? 박현철 연구원이 꿈꾸는 목회에 개혁연대도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교회가는 길

교회를 찾는 이들이 가볼 만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교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교회를 찾는 이들이 궁금해 하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수집해서 제공하고, 신뢰할만한 단체와 전문가의 리뷰와 평가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찾기 쉽게 제공하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론장의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는 길' 서비스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웹사이트 : findingchurch.net 혹은 검색창에 '교회가는 길' 검색
▷ 모바일 앱 : 앱 스토어에서 '교회가는 길' 검색

BOOK

모르고 지나칠 뻔한 책을 소개합니다!

김신일 집행위원
(대전 가까운책방 대표, 가까운교회 목사)

#1. 『까대기』 저자 이종철, 보리 출판사, 2019

책방 운영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간다. 책방을 운영하며 예전에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먼저 만화에 대한 일반적인 선입견이 크다는 것. 만화하면 왠지 얕잡아보고 수준 낮은 아이들이나 보는 책(?) 혹은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다. '작품성과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한번은 엄마와 아들이 책방에 들어왔다. 책방에 들어온 엄마는 아들에게 "아들, 맘에 드는 책 한번 골라봐. 대신 만화책은 안 돼". 나름 그래픽 노블 전문서점을 표방하는 책방에 들어와서 만화책은 안 된다니….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유통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작은 서점들은 직접 출판사를 통하여 책을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가 거래하는 중간 도서공급회사는 선입금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책을 공급한다. 물론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지만 결제 없이 책을 미리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량도 적고 금액도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주문한 책은 택배를 통해 받는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몇 번씩 책을 주문하는 입장에서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을 자주 만나게 된다. 택배 물량이 많아서 배달이 늦어질 때는 저녁 9시 가까이 되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전날 오전에 주문한 책이 다음날 배달되는 것인데 집에서 편하게 필요한 물건을 받아보는 소비자로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택배 배달원의 일상을 조금은 엿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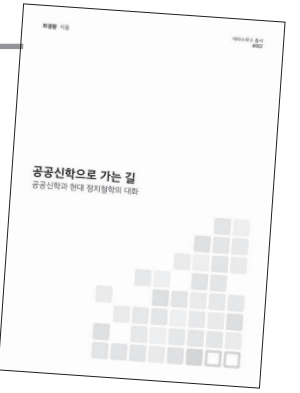
이종철 작가의 만화 <까대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문한 물건이 오게 되는지, 그 물건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속칭 '까대기'는 택배에서 물건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가대기'는 창고나 부두에서 인부들이 쌀가마니 같은 무거운 짐을 갈고리로 찍어 당겨서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또는 그 짐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니 '까대기'는 '가대기'의 변형된 말이라 짐작 할 수 있다.

아무튼 주인공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아르바이트로 '까대기'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택배의 뒷면을 보게 된다. 가령 택배 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노동자로 분류된다. 지점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택배는 배송만으로는 충분한 수입을 얻기 힘들다. 대략 개당 700~900원의 수수료(부가세 제외)를 받는데 그것만으로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

당연히 택배 노동자들도 이런 저런 일상을 살아간다. 가령 월요일은 전날인 일요일 물류센터에서 지난주 배송되지 못한 물량만 작업하기 때문에 지점으로 오는 물량도 거의 없다. '까대기'도 일이 적다. 다음날인 화요일은 택배 물량이 급증한다. 주말에 주문한 것들까지 포함되어 오기 때문이다.

곧 김장철이다. 절임 배추나 김치를 택배로 주문하여 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받는 세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의 클릭이나 스마트폰,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물건을 받는 일은 누군가의 엄청난 노동의 대가로 가능한 일이다. 그 속에도 사람의 만남이 있고 수많은 일상이 벌어지고 있다.

#2.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 저자 최경환, 도서출판 100, 2019



대전에서 성서한국과 함께 성서대전 운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7년이 되었다. 서울에서는 그나마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을 벌이는 기독교 NGO도 많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선교단체는 있어도 기독교 NGO로 활동하는 단체는 거의 없다. 여전히 교회들은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더군다나 공공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탐색 없이 반동성애 운동이나 편향된 정치적 문제에 교회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교인들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당황스럽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공공신학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는 것 같아 반갑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가고 기독교의 공공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종교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령 새벽기도회나 금요기도회 혹은 주일성수나 십일조, 개인기도와 QT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여전히 교회는 자신들의 게토 속에서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총체적 복음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리에 대한 이해는 관념적이고 피상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 저편 피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통치이다. 기독교는 현실에 눈감고 주문만을 되뇌는 도피의 종교가 아니다.

교단 헌법의 세습 금지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밀어붙이는 초대형교회의 비상식적 세습과 일반 상식에 반하는 초대형 교회 건축(사랑의 교회 건축에는 토지 매입과 건축에만 3,00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과 불법 점용(최근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다) 등 굵직한 사건들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힐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공공성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기독교 신앙은 많은 기독교인이 착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한국사회에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다. 한국사회는 다종교사회일뿐더러 종교인구 자체가 인구의 50%를 겨우 넘기는 비종교적 사회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의 가장 큰 종교 집단은 "무종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공신학에 대한 논의는 더욱 절실하다. 교회가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에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주장이 어떤 것이든 공공성을 기반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아무리 외친들 그게 기독교 밖 다른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은 저자 최경환의 말처럼 공공신학을 이론적으로 다룬 책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공공신학을 소개하고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로서 의미가 크다.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생소한 분야인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위한 의미 있는 책이 나와서 반갑다. 책의 분량도 200쪽을 조금 넘어서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 교회에서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과 신학이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함께 읽고 논의 할 수 있는 책이다. 신학생과 목회자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이 읽었으면 좋겠다.

대전에 가시면 대전 유일의 그래픽 노블 전문 <가까운 책방> 한번 가보세요.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earbooks
- 주소 : 대전 중구 대흥동 420
- 전화 : 070-4001-2937
- 영업시간 : 오전 11:00~오후 9:00



순전한교회를 응원합니다



인천시 계산동에 있는 순전한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작은 공간을 알차게 구성해 놓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순전한교회를 대표해서 변우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Q1.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순전한교회를 섬기고 있는 변우진 목사입니다. 저 자신을 근본주의 교회에서 태어나서 복음주의 운동을 하면서 성장했고, 개혁주의 목사가 되었다고 늘 소개합니다. 침례교회에서 자랐고 대학에서는 CCC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대학 졸업할 때 우연히 기독교 세계관 책을 보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개혁주의 교회의 모습을 구현하고 싶어 순전한교회를 개척했어요. 벌써 7년이 지났네요. 주중에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외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Q2. 순전한교회가 개혁연대를 어떻게 후원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평소에 교회개혁에 관한 열망과 관심이 높았어요. SNS에서 개혁연대 활동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한데, 어떤 일을 드러내놓고 앞에서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대신 앞장서는 단체가 있으니 고맙고 자랑스러워서 작게나마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미자립 교회라 많은 후원을 하진 못해 망설였지만, 같은 생각으로 앞장서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한 명의 목회자라도, 한 교회라도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Q3. '순전한교회'라는 교회명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요? 이 이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특별한 이름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잘 보진 못했어요. 교회 이름을 고민할 때, 부르기 편안하면서도 교회가 추구하는 철학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다가 순전한(mere)이라는 단어에 '순수한, 단순한, 최소한'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 결국 교회 안에 복음(말씀) 외에 사람들이 만든 군더더기(불필요한 제도, 사역, 관행)가 많아 오히려 복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단순해질 필요가 있겠다, 꼭 필요한 예배, 사역, 제도는 전통으로 이어가지만, 사람이 만든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여 짐을 덜어주고 싶었어요. 요즘은 교회 와서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mere라는 단어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은 '최소한의'라는 의미였어요. 저는 ACTS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초교파신학교라 여러 교단의 교리를 비교하며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교단마다 공통된 교리도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핵심진리(최소한, 반드시 지켜야 할 진리 예. 창조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등)'와 '주변진리(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화합하며 지낼 수 있는 것)'라는 개념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핵심진리) 외에 다른 것들은 단순하게,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Q4. 교회 비전이 "신앙과 삶이 일치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던데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교사 단체 활동을 할 때, 기독교 교육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북미주의 개혁주의 바탕의 기독교 학교들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한국교회를 볼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신칭의)만 강조되다 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겼고, 세계 선교나 전도하는 교회 등 복음 전도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책무, 윤리적인 삶에 대해 늘 생각했죠.



Q5. 3가지 사역원리(성경적 운영, 민주적 운영, 대안적 운영)을 표방하시는데, 실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실현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운영은 하나님의 말씀(성경)이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최고의 권위이며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교회가 모두 추구하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민주적 운영은 교회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주적 운영은 현대교회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최근 분쟁 교회들 대부분은 투명한 재정운영, 정관에 의한 의사합의기구 등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분란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교회 시작할 때 개혁연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나 교회의 정관을 참고하여 정했고, 매월 재정 공개를 성도들에게 하고,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두어 교인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적 운영은 지속가능한 복음 사역을 위해 현대적 상황에 알맞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성경적, 민주적 운영을 하는 교회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미래에는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해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엔 역부족이죠.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복음이 지속발전가능한 힘을 잃지 않으려면, 시대적 상황에 알맞은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는 전임 사역자이면서도 자비량 사역자로, 직분제에서도 여성 안수집사나 여성 장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시 맞벌이 가정 위주로 구성되면서 기존 교회의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형식도 도시교회에는 맞지 않죠. 퇴근하면 저녁 8~9시인 성도들에게 7시 수요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가정별 예배로 전환하고, 주일 오후 가족주간을 운영하기도 해요. 주일학교도 초1~6학년까지 통합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말씀 시간에는 따로 교사들이 순번제로 설교하고요. 주일 식사도 간단하게 반조리식품을 먹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며 식사 준비를 해요. 구제사역도 우리교회가 직접 하는 것은 연 1회이고, 전문 NGO 단체에 후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기성교회 틀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핵심만 잡고 간다면 좀 더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6. 작은교회운동에 관심 있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작은교회운동은 어떤 것인지, 한국교회의 대안으로서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지금 대형화된 교회들이 보여 주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대형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형화될수록 교회의 공동체성은 사라지고 조직화되지요. 살아 있는 공동체, 살아 있는 목양을 하려고 할 때, 성도 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은교회운동은 지금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어요. 작은 교회는 제도권 교회 안에서 대안을 찾거나, 비제도권 교회의 형태로 나아가는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교회운동을 하려면 먼저 목회자들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해요. 예전에는 청년부 맡다가, 부목사가 되고, 큰 교회 담임목사가 된다고 다들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비량 목회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로서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했던 대안적 운영이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교회는 작은데, 마인드는 대형교회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작은 교회가 대형교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지쳐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Q7.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 개혁연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제가 생각한 것들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아마 뜻은 있지만 나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단에 속해 있거나, 뜻은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해서 연대하도록 이끌어 주면 좋겠어요. 또 현안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모임도 필요하고, 의식 있는 교회들의 연대도 이끌어 내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기독교 교육인데,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교재나 교육 커리큘럼도 교회 개혁을 지향하는 교회들이 모여 함께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책자를 만들고 운동을 만드는 일이 참 힘든 일인데, 끝까지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전한교회
주소 : 인천 계양구 장제로809번길 5 (계산동) 3층
전화 : 010-9800-7150
홈페이지 : merechurch21.com

하반기 후원자 명단

6~9월 후원자 명단

- **기관회비** : 강남제일침례교회(4), 거룩한빛광성교회(4), 건강한작은교회연합(4), 겨자씨교회(4),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4), 그루터기교회(4), 기산교회(4), 너머서교회(4), 네모교회(4), 다함교회(4), 대구샘터교회(4), 더불어함께교회(4), 두레교회(5), 마산재건교회(4), 모퉁잇돌교회(4), 분당소망교회(4), 산울교회(4), 새길기독사회문화원(4), 새들녘교회(4), 새들녘교회(부천)(4), 새맘교회(4), 새생명교회(4증), 생동교회(4), 생명사랑교회(4), 서울가향교회(4), 서울영동교회(4), 서울평안교회(4), 순전한교회(4), 숲과싹교회(4), 언덕교회(4), 연청동우회(4), 열음터교회(5), 예수의길교회(4), 예인교회(4), 우리교회(4), 이든교회(4), 이우교회(4), 주날개그늘교회(4), 주사랑교회(4), 징검다리교회(4), 하이공동체교회(4), 함께여는교회(4), 함께하는교회예수마을(4), 해인교회(12), 향린교회(4), 향상교회(4) [예수이야기교회, 운정은혜교회, 사랑누리교회] (49곳/총 52곳)
- **위원회비** : 고상환(4), 구교형(4), 길형준(4), 김동민(4), 김성학(4), 김종미(3), 김홍섭(4), 남오성(4), 박득훈(4), 박종만(4), 박종운(12), 방인성(6), 백종국(4), 손봉호(4), 신흥식(4), 안현식(4), 윤경아(4), 윤선주(4), 이명희(4), 이방욱(6), 임왕성(4), 정성규(4), 정운형(4), 최갑주(4증), 최윤호(4), 황병구(4), 황영수(4)[김정태12, 이방욱6] (29명/총 39명)
- **회원회비** : *이남창(3), *이미경(2), *이윤화, *이우진(2), *엄태근(2), *선의성, *이정화, *조승연, 강경태(2), 강경훈(4), 강대남(4), 강병우(3), 강은희(4), 강홍석(4), 고영택(4), 공세자(4), 공영찬(4), 곽은이(4), 구옥서(4), 국지연(4), 김건(4), 김광원(4), 김광진(4), 김국형(4), 김남진(4), 김당현(4), 김대인(4), 김대준(4), 김덕용(4), 김동영(4), 김동주(4), 김명근(4), 김명수(3), 김문찬(4), 김사원(4), 김상진(4), 김상학, 김석렬(4), 김석주(4), 김석중(4), 김성수(4), 김성철(4), 김성현(4), 김승무(4), 김영남, 김영민(6), 김영숙(4), 김영조(4), 김영태(2), 김오봉(4), 김용미(4), 김은선(4), 김은우(4), 김은혜(3), 김장수(3), 김재수(4), 김재환(4), 김전승(4), 김정만(4), 김정옥(4), 김정웅, 김정철(4), 김정혁(4), 김정훈(4), 김주영A(2), 김주영B(4), 김준규(4), 김지형(4), 김찬미(4), 김태완(4), 김택산(4), 김현(4), 김현아(4), 김형찬(4), 김효경(4), 나희량(4), 노민호(4), 도윤포(4), 도임방주(4), 류상현(4), 목영협(4), 박기환(3), 박대영(4), 박상호(4), 박석배(4), 박선영(4), 박성완(4), 박성철(4), 박수창(3), 박영은, 박원주(4), 박종선(4), 박윤만, 박정래, 박종원(4), 박춘상, 박찬오(3), 박춘원, 박현수(4), 박혜민(4), 방다혜(4), 박희병(4), 방선일(4), 방성현(6), 배경도(4), 서동진(4), 서영숙/김형태(4), 서유미(4), 서재규(3), 서현정(3), 석기병(4), 성미소(3), 손미향(4), 손윤희(4), 손정아(4), 송성규(4), 송상근(4), 송수윤(3), 송봉철, 송인수(4), 신광혜(3), 신상국(4), 신현춘(4), 신후원(4), 안인원(4), 안재영(4), 안준배(4), 양완범(4), 양요한(4), 엄두정(4), 오성균(4), 오영아(4), 오정훈(4), 오현택(4), 온상원(4), 우상범(4), 원미희(4), 원창희(4), 위우정(4), 유경석(4), 유덕현(4), 유미선(4), 유연기(4), 유지희(4), 윤경한(4), 윤기원(4), 윤세중(4), 윤영식(4), 윤영준(4), 윤환철(4), 이강우(3), 이광구(4), 이득린(4), 이만열(4), 이명래(4), 이상협(4), 이석원(4), 이성혜(2), 이수민(4), 이수호(4), 이순조(4), 이승규(4), 이영이(4), 이영준(4), 이용관(5), 이용필(4), 이원근(4), 이윤헌(4), 이재구(4), 이재목(3), 이정웅(4), 이종규(4), 이종수(4), 이종연(4), 이지행(3), 이태승(4), 이해복(4), 이희영(4), 이희정(4), 인영수(4), 임경미, 임경준(4), 임병길(4), 임상래(4), 임영환(4), 임완민(4), 임용태(4), 장명환(4), 장봉갑(4), 장영태(4), 장재하(4), 장현호(4), 전문수(4), 정기용(4), 정봉희(5), 정상용(3), 정석구(4), 정성문(4), 정성희(4), 정유섭(4), 정일영(4), 정재준(4), 정창해(3), 정호진(4), 정효섭(4), 정훈집(4), 조건영(3), 조광희(5), 조만호(4), 조병진(4), 조석민(4), 조성학(4), 조영곤(4), 조요나(4증), 조운정(4), 조주희(4), 조현정(4), 주대범(4), 주동재(4), 지용태, 차용태(4), 채현석(4), 최두진(4), 최민우(4), 최상태(4), 최인혁(4), 최정규(4), 최현진(4), 탁성만(4), 하수동(4), 한규주

(4), 한만옥(4), 한병덕(4), 한복연(4), 한상은(4), 한승희, 함봉식(4), 현삼원(4), 홍동기(4), 홍민식(3), 홍성주(4), 홍성진(4), 홍한표(4), 황덕권(4), 황봉수(4), 황진욱(4)[김영석, 노정기, 최윤정, 곽원균, 고세훈, 이상철] (252명/총 271명)

- **목적후원금** : *새로운개혁교회(목포강의), 하늘봄공동체(교회다시세우기2), 예인교회(상담소4), 김홍기(교단총회), *순천중앙교회(교단총회), 익명(교단총회), 12기아카데미수강생들(13기아카데미), 익명(사무국)
- **일반후원금** : *한승희, *오창훈, *김정미, 김학빈(4), 박득훈, 박세진(4), 박희만(2), 배선복, 윤범한, 윤선애(4), 조원숙(4), 평안한교회(4), 한승희, 홍성주, 익명
- **물품/간식후원** : *최병진(2), 강경훈, 길형준, 김동민, 김종미, 박종만(2), 양민철, 서동진(2), 김종희, 윤환철, 윤경아, 익명(5), 안태훈, 최호윤(2), 최갑주

총 회원 수 : 정회원 309명(위원 포함), 관심회원 4,186명

*표시 : 신입회원 8명, 신입교회 0곳 등록, (증)증액, (숫자)후원횟수

이달의 살림살이

- 교회개혁운동에 귀한 물질로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복식부기를 사용하며, 매월 재정 결산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월 10일경, 후원금 확인 및 감사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후원금 자동이체 만기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이번 달이 가기 전에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 후원자 명단을 통해 후원 내역을 확인하세요. 상이하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CMS로 후원해 주시는 회원님! 세금공제용 계좌로 변경하세요.**
  개혁연대가 아직 법인이 아니므로, 일반계좌나 CMS로 후원하시면 연말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다면, (재)한빛누리와 협약을 통해 개설한 아래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하세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상세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금공제용 계좌 : 국민은행 **093401-04-088670**(예금주: 한빛누리교회개혁)
- 적은 금액이라도 매월 일정하게 후원해 주시면, 교회개혁운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개혁연대를 알 수 있도록 주변 추천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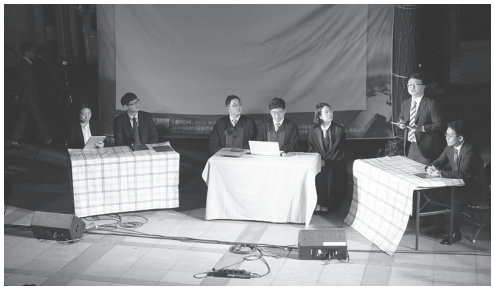
전화 **02-741-2793** / 이메일 **protest@protest2002.org** / 문자 **02-741-27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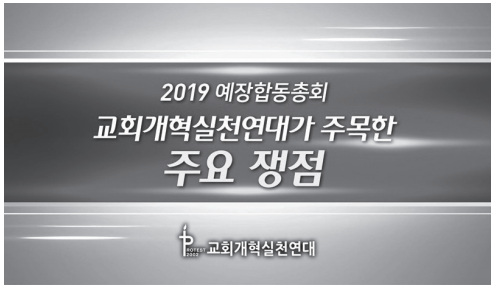
7~10월 한줄소식

07.02 소식지 '공감' 72호 발행
07.09 바른 재심 판결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
07.16 명성교회 불법세습 재심에 대한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및 피켓 시위
07.16 [논평]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불법이다!
07.29 2019년 상반기 교회문제상담소 상담통계
08.01 2019년 성서한국 전국대회 사회선교박람회
08.06 [논평]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
"정의를 향한 한 걸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08.20 2019 교단총회 참관단 모집 "우리의 시선이 교회를 바꿉니다"
08.27 제104회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 앞 피켓 호소 활동
08.30 목회자 퇴직금 세미나 "성경과 세법이 말하는 목회자의 퇴직금"
08.31 집행위원회 여름 워크숍
09.10 2019 교단총회 참관단 출범 공동 기자회견
09.16 [입장문] 개혁은 자신의 성찰과 함께
09.26 [논평] 명성교회 세습 허용한 총회 결의에 대한 세반연 논평
"세습의 길을 터준, 이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를 애통해하며"
09.30 13기 교회개혁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시작
10.04 명성교회 불법세습 10만인 반대 서명 시작
10.10 2019 교단총회 참관단 활동 결과 기자회견
10.10 [카드뉴스]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세습의 길을 열다
10.14 [카드뉴스] 2019 예장합동총회,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주목한 주요쟁점
10.18 [논평]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 취소 판결에 순복하라
10.19 목포세미나 "교회! 변화의 길로 나아가다"(1)
10.24 2019 교회개혁사역을 위한 100인 특별모금
"버팀목이 되어줄 친구를 찾습니다"
11.02 목포세미나 "교회! 변화의 길로 나아가다"(2)
11.07 13기 교회개혁아카데미 '교회를 일구어가는 우리들의 자세'(4주)
11.07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이재용과 함께하는 연합 기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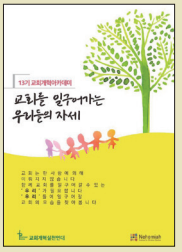






• 교회상담-대면상담, 전화상담 상시 진행 중
• 교회 세습 신고/상담/의혹확인 중 • 이슈별 언론인터뷰

#1. 13기 교회개혁아카데미 '교회를 일구어가는 우리들의 자세'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지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를 일구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일구어갈 교회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13기 교회개혁아카데미는 교회를 정의해보고, 지금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일구어갈 교회를 그려봅니다.

- 때와곳 : 11월 7일(목)부터 11월 28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한백교회
- 내　용 : 오늘의 교회,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 공공성만이 해답인가?, 왜 탈교회인가?, 마무리 모임 & 워크숍
- 강　사 : 김동춘 교수(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성학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 수강료 : 4만 원(개혁연대 정회원 3만 원), 부분 수강 가능(각 강좌당 1만 원)
- 참가신청 : 홈페이지(www.protest2002.org)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수강료 송금 ▷ 등록 완료

#2. 명성교회 불법세습 10만인 반대 서명 요청

2019년 9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예장통합)총회에서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사실상 허용해 주었습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이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교회세습을 반대하는 10만인의 마음을 담아 예장통합 총회에 전달하고, 그들이 선택한 길이 결코 옳지 않음을 세상이 알리려고 합니다. 정의로운 한 길로 끈질기게 나아갈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지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개 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서명링크 : http://bit.ly/명성교회세습십만인반대서명

10만인 반대서명하기

#3. 2019 교회개혁사역을 위한 100인 특별모금 "버팀목이 되어줄 친구를 찾습니다"



[긴급수혈] 일시불로 10만원씩 후원해 주실 분 100명을 찾고 있습니다.

2015년 연말에도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재정난을 이겨내고 그 이후 교회상담, 세습반대운동과 교단총회 참관활동, 교육사업 등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회원 및 교회후원은 늘고 있지만, 개혁연대가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시불로 10만원씩 후원해 주실 분 100명을 찾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끝끝내 버티며, 역동적으로 교회개혁운동을 할 수 있도록 12월 말까지 특별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회원확대] 개혁연대의 사역을 위해 정회원 가입 및 주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정회원은 309명이나, 이중 실제 이행하는 분들은 258명 정도입니다. 교회개혁을 바라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마음과 마음이 모여, 2020년에는 더욱 큰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본 100인 특별모금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매월 회계보고와 모금 상황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후원방법 안내

-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실 때) 국민 **093401-04-088670**(한빛누리교회개혁)
- 기부금영수증이 필요없을 때) 국민 **299601-01-028011**(교회개혁실천연대)
  보내실 때〈100인 본인이름〉을 표시해주세요.
  문의 **02-741-2795**(전화, 문자 가능)

100인모금 프로젝트

2019 교회개혁사역을 위한 100인 특별모금

공동대표 서신

교회가 참 희망입니다

2019년 풍성한 가을에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출범한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응원과 후원으로 힘차게 달려왔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깊은 고민과 개혁을 향한 열망은 큰 힘이 되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회개혁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목회 세습은 교묘하게 진행되고,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로 성도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교인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청년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분별력으로 개혁을 외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참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 일은 점점 더 늘어나지만 경제가 힘들면서 개혁연대도 재정의 어려움을 전해드립니다. 올해 적자 운영을 해 오면서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일시불로 3만, 5만, 10만 원의 후원이나 정기후원을 증액해 주셔도 좋습니다. 안정된 재정구조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늘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여 주실 것이다." 교회개혁이 필요하다면 일할 수 있는 재정도 마련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 말씀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 담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후원을 요청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개혁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우시지만 조금씩 더 후원해 주신다면, 힘내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내어 교회개혁의 길을 끝까지 갑시다.
교회가 참 희망입니다.

공동대표 박종운 방인성 윤경아 드림

PROTEST 2002 교회개혁실천연대